

설레는 '아트투어' 유럽으로~

'세계로 떠나는 아트투어'

유명 관광지를 둘러보는 여행을 벗어나 미술, 건축, 음악, 역사, 인문 등 다양한 주제로 떠나는 아트투어가 새로운 트렌드로 떠오르고 있다.

국립광주박물관, 전남대박물관 등이 관련 강좌를 진행한 후 현지 탐방을 떠나는 형식에서 한 발 더 나아가 20~30명으로 팀을 구성, 직접 여행사와 상의해 일정을 짜고 떠나는 예술여행이다. 특히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여행 가이드로 참여하면서 다양한 설명과 해설을 들을 수 있는 게 투어의 최대 장점이다.

개인 여행자나 소규모로 아트 투어를 예정하고 있는 이들은 방문 장소 등을 공유하며 자신만의 스케줄을 짜기도 한다.

코로나 19로 중단됐던 '아트투어'가 다시 지지를 받기 시작했다.

지금까지 네덜란드, 독일, 헝가리 등으로 음악여행을 떠났던 클래식 음악감상실 '다락'은 3년만에 콘서트 여행을 재개한다. 건축투어, 미술관·박물관

클래식 음악·미술 전문가 동행 심도있는 해설...여행 감동 두배
음악감상실 '다락', 함부르크 엘프홀 등 세계적 공연장서 공연 감상
미술기획자 윤익 인솔, 베니스 비엔날레·루이비통 미술관 관람

광주문예회관, 11시 음악산책 '세계 도시로 떠나는 클래식'도 인기

투어와는 달리 음악 투어는 상대적으로 수요가 적고 티켓 확보 등에 어려움이 있어 성사되기가 쉽지 않지만 다락은 꾸준히 행사를 진행해왔다. 특히 최근에는 뛰어난 건축미와 음향 등 공연장 자체만으로도 화제가 된 곳들이 많아 인기가 높아지고 있다.

9월1일-11일까지 떠나는 이번 일정은 노르웨이 베르겐과 오슬로, 독일 함부르크와 베를린을 둘러보는 코스다.

피요르드 투어 등 인기 관광지도 있지만 역시 핵심은 클래식 공연이다. 특히 함부르크 엘프홀하모

니 콘서트홀 등 세계적인 공연장에서의 음악 감상이 하이라이트다.

이번 투어 기간 중에는 모두 4번의 공연을 관람한다. 작곡가 그리그의 고향인 베르겐의 호콘홀에서는 지난해 쇼팽콩쿠르 우승자인 브루스 리우의 피아노 독주회를 감상하며, 그리그 콘서트홀에서는 그리그국제피아노 결선 대회 실황을 만난다.

함부르크에서는 전세계 클래식 팬들이 가장 가고 싶어하는 공연장으로 꼽히는 엘프홀하모니 콘서트홀에서 열린 길버트가 지휘하는 NDR엘프홀 오케



광주문예회관이 '세계 도시로 떠나는 클래식'을 주제로 진행하는 '11시 음악산책'은 클래식 공연과 강사가 아우러진 프로그램이다. 7월 열린 '문명의 교차로 안달루시아'.

스트라 공연으로 슈베르트의 '교향곡 8번'을 감상한다. 그밖에 베를린 필 공연장에서는 계반트하우스 오케스트라(지휘 앤드리스 넬스)의 베토벤 '교향곡 7번' 등을 만난다.

다락과 투어를 기획한 김재훈 다니엘 여행사 대표는 "구하기 어렵다는 엘프홀 티켓 수신포를 한꺼번에 구하느라 애를 먹기도 했지만 다른 곳에서는 하기 어려운 프로그램을 만들었다는 뿌듯함이 있다"며 "아트투어와 관련한 수요는 앞으로 꾸준히 늘어날 것 같다"고 말했다.

윤익 미술문화팩토리 아트파티 대표는 오는 21일부터 30일까지 예술가, 미술 애호가들과 함께 '미술투어'를 떠난다. 대형 미술축제와 대표 미술관 등을 둘러보는 기획으로 윤 대표는 앞으로 1년에 한 차례 정도는 투어를 꾸려볼 생각이다.

올해 투어의 첫 시작은 이탈리아로 현대미술의 경연장인 베니스비엔날레와 밀라노현대미술관을 방문한다. 파리로 이동한 후에는 오르세 미술관, 루브르박물관 등 많은 이들이 찾는 곳과 더불어 루이비통미술관에서 작품을 관람한다.

또 지난해 구찌 등을 보유한 케링 그룹 창업주 프랑수아 피노가 옛 증권거래소를 현대미술관으로 탈바꿈시킨 '부르스 드 코메르스(Bourse de Commerce)피노 컬렉션'도 찾을 계획이다.

마지막 코스는 5년마다 한 번 열리는 미술축제 카셀도큐멘타 관람이다.

여행 일정을 짰던 윤 대표는 "관광지를 둘러보고 쇼핑을 하는 것도 좋지만 미술축제나 미술관 관람 등을 통해 또 다른 문화를 접해보는 것도 의미있는 일"이라며 "전문가와 함께하는 투어만큼 조금 더 유익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유럽 현지로 떠나는 뜻에도 음악 감상, 인문학 강좌를 통해 세계 각국으로 떠나는 프로그램도 인기다.

광주문예회관이 진행하는 '11시 음악산책'의 올해 주제는 '세계 도시로 떠나는 클래식 인문학 여행'은 티켓 판매 2~3일이면 표가 매진되는 인기 프로그램이다.

서울대 성악가 출신으로 라움 등에서 클래식 강의를 진행해온 김이근(윤이상 평화재단 평화사업단 음악감독)이 콘서트 가이드로 참여해 도시의 역사, 문학, 미술, 음악 강좌와 진행하고 다양한 연주자들이 클래식 라이브 연주를 들려준다.

지난 7월에는 '문명의 교차로 안달루시아'를 주제로 행사가 열려 '알함브라 궁전의 추억' 등 플라멩코 기타연주, 플라멩코 무용 공연 등이 펼쳐졌다.

8월29일에는 독일 라이프치히로 떠나며 지휘자 레너드 번스타인과 '위대한 개츠비'를 만나는 미국 뉴욕(9월26일), 피아졸라와 탱고, 프리다 칼로와 함께하는 라틴아메리카(10월31일), 차이코프스키, 톨스토이와 조우하는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11월28일)가 기다리고 있다.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전 세계 클래식팬들이 가장 가고 싶은 공연장으로 꼽는 함부르크 엘프 필하모니 콘서트홀.

가족 뮤지컬 '색깔요정!' '캔터빌의 유령' '레미제라블'



'뮤지컬 색깔요정! 남남 신호'



'뮤지컬 레미제라블'

전남문화재단, '남도어린이페스타' 10일, 17일, 24일 공연

전남문화재단(대표이사 김선출)이 여름방학을 맞아 다양한 가족 뮤지컬을 준비했다.

8월 한 달 간 매주 수요일 남도소리울림터 공연장에서 하루 두 차례 열리는 '2022 남도어린이페스타'는 아이들 시선을 사로잡는 화려한 작품은 물론 명작 뮤지컬로 관객들을 찾아간다.

먼저 오는 8월 10일 펼쳐지는 '뮤지컬 색깔요정! 남남 신호' 공연은 벵군대장과 색깔요정들의 이야기로 50분 간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알뜰달룩한 무

대와 의상으로 환상적인 느낌을 선사한다.

이어 8월 17일 세계적인 명작 빅토르 위고의 소설 '레미제라블'을 원작으로 한 '뮤지컬 레미제라블'은 어린이 눈높이에 맞춰 작품을 쉽고 재미있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주인공 코제트와 함께 공연이 진행되는 70분 간 무더위를 잊을 수 있는 명품 공연이다.

8월 24일 공연은 '뮤지컬 캔터빌의 유령'이다. 특별한 자랑거리가 없는 여자아이 '버지니아'가 캔터

빌 저택에서는 유령의 고민을 해결하는 이야기로 어린이들이 공감할 수 있는 뮤지컬 작품이다.

모든 공연은 하루 두 차례(오전 10시 30분, 오후 2시) 상영하며 무료로 관람 가능하다.

관람신청은 남도소리울림터 누리집을 통해 예약 가능하다.

올해로 3회째를 맞은 '2022 남도어린이페스타'는 어린이 가족 공연이 부족한 전남지역 현실을 고려해 기획됐으며, 지역 어린이들의 창의력 향상과 정서발달에 도움을 주는 공연 프로그램으로 구성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구례자연드림락페스티벌 오세요"

26~27일 구례자연드림파크...쇼찬휘·크라임넷 등 출연

청정지역 구례군에서 자연과 함께 하는 락 축제 '2022 구례자연드림락페스티벌'이 26일부터 27일까지 이틀간 구례자연드림파크에서 3년 만에 다시 열린다.

친환경적 이미지를 담아 2015년부터 진행해 온 '구례자연드림락페스티벌'은 'Kiss the earth'라는 슬로건을 가지고 지구와 상생하는 친환경적 가치를 지닌 구례자연드림파크 국내 최고 수준의 자연환경을 자랑하는 도시 구례가 결합된 환경페스티벌로 2022년 다시 태어났다.

3년 만에 현장 공연이 부활한 만큼 기존 1일 페스티벌에서 2일 간 진행하며, 환경캠페인도 진행한다. 또한 구례자연드림파크에서 생산되는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를 맛볼 수 있다.

첫날인 26일에는 쇼찬휘, 로맨틱펀치, 406호 프로젝트가 무대에 올라 여름밤을 뜨겁게 달군다.

둘째 날 27일에는 육남매, 크라임넷, 타카피, 디펄스, 노브레인, 정홍일(바크하우스), 윤성(아프리카)가 무대에 오르며, 국카스텐



쇼찬휘

국카스텐

이 '2022 구례자연드림락페스티벌'의 피날레를 장식할 예정이다.

지정 좌석이 없는 야외 공연으로 온라인(티켓링크, 네이버)과 오프라인(구례자연드림파크 매장)에서 입장권을 예매할 수 있다.

티켓 가격은 26일(1일권) 1만 1000원, 27일(1일권) 3만3000원, 양일간 4만 4000원이며, 구례군민 할인권도 판매 중이다.

/구례-이진택 기자 lit@kwangju.co.kr



노브레인

영산강문화관 '쓰레기UP! GO 퍼포먼스' 참가자 모집

K-water 영산강보관리단과 수자원환경산업진흥(주) 영산강문화관은 환경 교육과 예술을 접목한 프로그램 '영산강 쓰레기UP! GO 퍼포먼스' 참가자를 모집한다.

프로그램은 아이들이 직접 주도권을 가지고 에코 퍼포먼스를 만드는 연극형 환경 예술 교육이다. 프

로그램 내용은 오감 발달 영산강 서바이벌 체험, 나만의 동식물 가면 만들기, 비밀 메시지 플래카드 만들기, 에코 퍼포먼스 등으로 창의력을 높일 수 있는 연극 놀이와 업사이클링을 활용한 예술 활동이 4차례에 걸쳐 진행된다.

영산강문화관의 자연 친화적인 장소를 이용,

실내와 야외활동을 병행하며 환경 교육을 예술 놀이로 풀어낼 예정이다. 매 시간마다 간식을 제공하며 모든 회차에 참여하면 영산강 엠버서더 배지를 수여한다.

모집대상은 초등학교 4~6학년이며 9월 3일부터 매주 토요일에 진행된다. 1기 모집은 8월 9일, 2기 모집은 9월 20일부터 시작되며 선착순 10명씩 모집한다. 접수는 영산강문화관 네이버 카페. 문의 061-335-0862. /김미은 기자 mekim@